

## 식품기업 산업보건의 표준을 만든다

### 롯데웰푸드

#### 비상안전부문

롯데 기업의 모기업인 롯데웰푸드는 1967년 롯데제과로 시작, 2022년 롯데푸드와 합병하며 제과를 비롯한 HMR(Home Meal Replacement), 육가공, 유지 등 다양한 웰니스 먹거리를 생산 중인 대한민국 대표 종합식품기업이다. 롯데웰푸드의 비상안전부문은 국내 식품업계 리더라는 자부심과 의무감을 바탕으로 그룹 내 모든 현장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K-푸드 열풍으로 드높아진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산업보건 표준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글 편집실 사진 김재이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

롯데웰푸드는 빼빼로, 월드콘, 가나초콜릿, 로스팜, 파스퇴르 우유 등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생산하며 오랜 기간 국내 식품제조업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 롯데웰푸드에는 6,000여 명(공장 3,400명(파트너사 포함), 자회사 1,00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이며 인도·러시아·파키스탄 등 7개국에 총 21개 해외 공장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식품기업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가고 있다.

롯데웰푸드 비상안전부문은 그룹 내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중이다. 비상안전부문 안전경영팀 김순영 팀장은 “스낵 및 아이스크림부터 각종 유제품 및 육가공, 여기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는 도시락, HMR 소스류 등 폭넓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라며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합병으로 하나가 된 그룹 특성상 각 공장만의 제조 특성과 오랜 기간 쌓아온 자체 문화까지 통합해 운영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비상안전부문과 각 공장 안전담당이 열심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관리 중입니다”라고 말했다.

비상안전부문은 공장을 비롯한 영업지사 및 지점의 안전진단은 물론, 안전 관련 정책 수립부터 운영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사고와 건강장애의 선제적 예방’을 중심에 두고 확고한 전사 표준 운영 절차(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점검·교육·표준 작업 등 50여 개의 공통된 규정과 지침을 바탕으로 운영된다. 정기적으로 현장의 위험 요인(설비, 작업 방법 및 환경, 관리 수준 등)을 진단하고 문제가 발견





롯데웰푸드



되면 각 공정 및 현장 특성에 맞춰 근원적 해결책을 설계한다.

게다가 종량물을 취급하고 동일 작업이 반복되는 식품제조 현장의 특성상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늘 상존하고, 또 누적되기 쉽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처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비상안전부문은 작업, 설비, 관리 체계를 중대 위험(High Risk)과 재발 가능성 등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한 후 순서대로 확실한 집중개선(공학적·관리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식품기업의 딜레마**

“식품 업종은 구조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산업입니다. 먹거리 생산 기업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그동안 쌓아놓은 신뢰가 쉽게 무너집니다. 물론 안전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특성은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된다는 책임감 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도 다가옵니다.”

김용민 부문장의 말처럼 가전제품의 불량이나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와 비교해 식품 이물질 혼입과 생산공장의 안전사고는 국민 정서상 엄청난 차이로 다가간다. 실제로 식품기업이 각종 사건과 사고로 이미지를 실추하고, 쉽게 회복하지 못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건강’이란 민감한 문제와 연관된 산업 특성상 식품기업의 안전보건은 기업의 존망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다른 문제도 있다. 식품제조업은 전자제품이나 일반 공산품보다 원재료 비용이 많이 들고, 영업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다. 따라서 늘 생산원가에 대한 부담을 겪는다. 여전히 많은 식품 생산 현장에서 수작업 공정이 진행되고, 비교적 낮은 임금으로 인해 현장 노동자의 나이 역시 계속해 높아지는 상황이다. 부작용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문제는 산업 내 중요한 이슈 급부상 중이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9월 진공 흡착 방식의 운송장비 ‘플렉스리프트’를 현장에 본격 도입했다. 작업자는 ‘플렉스리프트’를 활용해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고 내릴 수 있다. 김순영 팀장은 “2022년부터 5개년 계획하여 공장 설비를 개선하고 자동화 공장 및 설비를 추가하는 대대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며 “천안, 평택, 김천 공장 등에서 하나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최근에는 분야를 넓혀 첨단 물류센터 건설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이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롯데웰푸드의 경쟁력 역시 이를 바탕으로 성장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안전보건 활동**

롯데웰푸드와 대한산업보건협회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보건유해인자 개선 컨설팅, 현장 관리감독자 정기 교육,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여러 협업을 진행 중이다. 2024년에는 보건관리 강화 컨설팅을 통해 사업장 소음 관련 유해인자를 파악했고, 협회와 함께 실제 개선까지 성공했다. 공장안전진단담당 황준영 담당은 “컨설팅을 통해 천안공장의 소음 문제를 파악했고, 전문 업체 연결까지



도움받으며 방음 커버를 제작했습니다. 이물질이 나와선 안 되는 식품공장의 특성에 맞춰 스테인리스로 제작한 특수 장비를 설치했습니다"라고 설명하며, "이후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7% 이상이 소음 개선 효과에 매우 만족했다고 답했습니다"라고 성과를 소개했다.

2025년에는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활동을 진행했다. 400여 개 공정에서 실시 중인 중량물 취급이나 반복되는 작업을 인간공학기법(REBA)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근골 부담과 관련한 우선순위(고위험·보통·낮음)를 구분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개선율 80%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시작한다. 황준영 담당은 "협회 컨설팅의 장점은 실제 현장을 기준으로 문제를 잡아주고,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라며 "천안공장 사례처럼 문제 진단부터 마무리까지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일에 언제나 큰 힘이 되어줍니다"라고 강조했다.

### 대한민국 식품업계 선도기업

롯데웰푸드 비상안전부문은 현장 중심의 안전 문화 확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 JUMP UP 전략 컨퍼런스'를 통해 롯데웰푸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안전보건 계획과 성과를 공유한다. 안전과 관련된 주요 과제들을 함께 토론하며 각자의 안전경영 수준을 올리고, 사업장 안전담당자의 의견 청취 및 회사의 사업계획을 전파하는 자리로도 활용한다. 최근에는 시로 제작한 비상안전부문의 캐릭터 '안심이'를 선보였다. 안심이는 현장의 잔소리꾼이 아닌 수호천사로 활약하며 노동자의 고충을 들어주고, 칭찬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그룹 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비상안전부문의 많은 고민과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롯데웰푸드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식품기업이다. 롯데웰푸드의 전신 롯데제과는 2021년 제과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2018) 인증서를 획득한다. 해당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및 보건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합병 후인 2023년에는 국내 롯데웰푸드 11개 공장을 비롯한 자회사 CK 4개 공장 및 중앙연구소가 국제기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확인받았다. 앞으로도 롯데웰푸드는 대한민국 식품기업의 산업보건 표준을 만드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상안전부문이 함께할 것이다. 🔄

## “ 몸에 밴 습관처럼 자연스러운 현장 안전

롯데웰푸드 비상안전부문  
**김 용 민**  
부문장



안전은 결국 올바른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빨간 불에 서고 파란 불에 건너자는 캠페인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같은 이유로 반복해 교육하고, 상벌을 강화하지 않아도 몸에 밴 습관처럼, 현장에선 근무복과 업무용 신발을 신으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국가 수준에 걸맞은 안전의식은 정부가 주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기업이 성공 사례를 늘려가고, 문화 저변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듯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정진할수록 우리의 작업장은 그만큼 더 안전하고 건강해질 것입니다.